

광주 향하는 대선 후보들... '5·18정신' 다시 중심에

市, 국회의장·의원 등 300여명 초청
대선 앞두고 최대 규모 정치적 집결
이재명, 5·18 헌법 수록 의지 밝힐 듯
김문수·이준석 등 오월 메시지 관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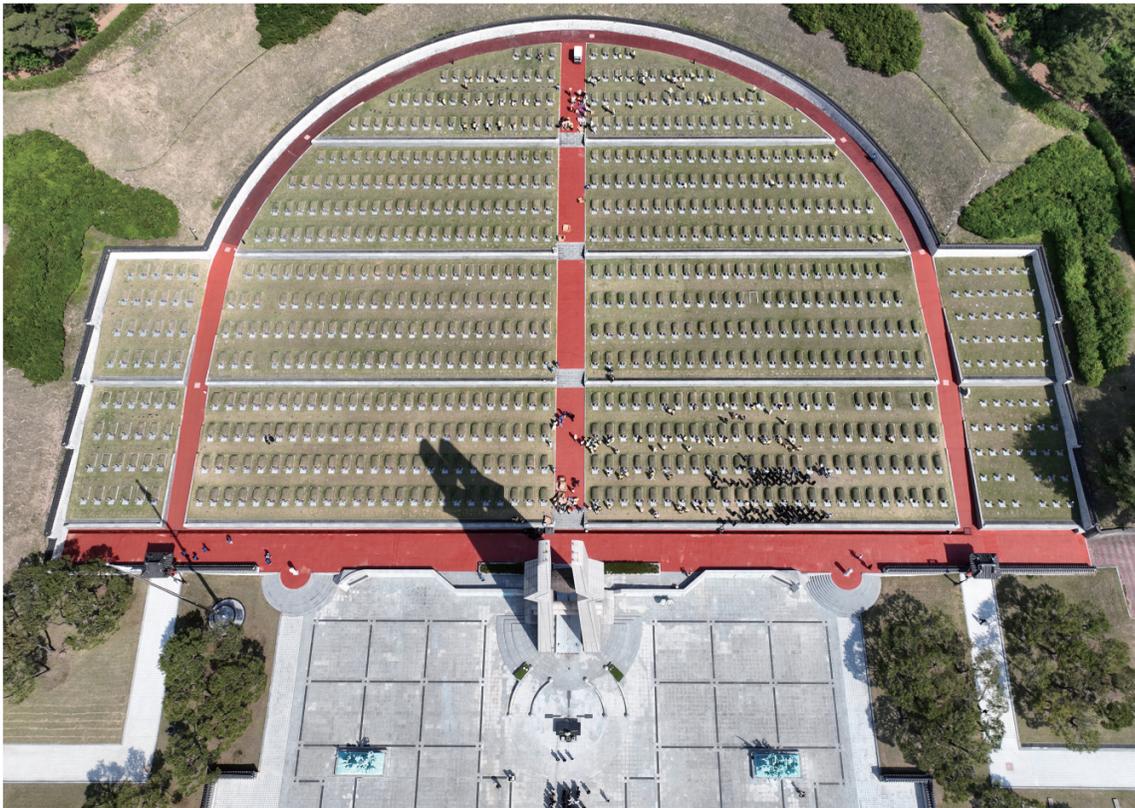
5·18 민주화운동 45주년을 맞아 광주가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5·18 주간은 6·3 조기 대선을 불과 2주일 앞두고 열리는 만큼, 각 정당과 후보들의 호남 공략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14일 광주광역시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광주시는 최근 우원식 국회의장 등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5·18 기념식 참석 초청장을 발송했다.

각 정당의 대선 후보들과 정치권 인사들도 대거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과 총리가 궐위된 초유의 상황인 만큼, 역대 최대 규모의 정치적 집결을 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5일부터 전라남도 광양·여수·순천·목포를 돌며 유세를 진행한 후, 17일 5·18 전야제와 18일 기념식에 참석한다.

이 후보는 지역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5·18민주화운동 45주년을 맞아 14일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는 조화 교체와 묘비 정화활동을 펼친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봉사원과 광주시 산하 공직자들, 현장체험학습 나온 중학생 등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해 5·18 기념식에서 "더 이상 5·18 폄훼와 왜곡이 발붙이지 못하

도록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번

광주 방문에서 그 약속에 대한 의지를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김양배 기자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 역시 5·18 기념 주간에 맞춰 광주를 찾는다. 이들은 오월 영령을 기리며 유세를 펼칠 예정이다. 특히 개혁신당은 5·18 전야제에 앞서 선거대책위 출범식을 열고, 광주정신 계승을 강조할 계획이다.

이준석 후보는 지난 4일 5·18 민주묘지를 방문해 "보수와 진보 구분 없이 5·18정신을 받아들여 민주주의가 바로 선다"며 헌법 전문 수록에 긍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이번 5·18 기념식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첫 국가적 추모 행사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지난해 12·3비상계엄당시 전국적으로 '광주정신'이 재조명되면서, 대선 후보들의 메시지가 더욱 중요한 무게를 가지게 됐다.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과거사 진상규명, 호남 지역 공약 등이 주요 화두로 떠오른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최근 한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계엄과 탄핵을 거치며 많은 이들이 광주를 새롭게 봐주고 있다"며 "새 정부에 바라는 광주의 제1과제는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이다. 추모기간 많은 이들이 찾아와 민주주의의 씨앗을 더욱 키워달라"고 밝혔다.

2면에 계속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

이재명, 오늘 전남 첫 유세 '텃밭 민심잡기'

선책 2025 대통령 선거 D-19

화개장터~광양·여수·목포 표몰이 '동서 통합'... 이순신 광장 등 찾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5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로 텃밭인 전라남도를 찾아 표심잡기에 나선다.

지난 13일 보수의 본진인 대구·경북(TK)지역을 방문한 이 후보는 14일 부산을 시작으로 창원과 통영, 거제에서 유세전을 벌인 데 이어 15일에는 영호남의 경계인 화개장터를 거쳐 전남 광양과 여수, 순천, 목포를 찾는다.

임진왜란 당시의 남해안 전투 지역을 동(東)에서 서(西)로 훑으며 경상도와 전라도를 가로지르는 '동서 통합과 발전' 일정이다. 민주당은 이를 '국난 극복 이순신 호국 벨트 유세'로 명명했다.

조승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수석 대변인은 "이순신 장군의 호국 정신을 이어받아 국난 극복 의지를 되새기고 동남권과 호남

권의 발전과 통합을 이루겠다는 후보의 강한 포부가 담긴 일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순신 벨트' 유세 첫날인 이날 6·25 전쟁에 참전한 유엔군 용사가 잠든 유엔기념공원을 참배한 뒤 부산에서 대규모 유세를 벌였다. 이어 경남 창원 상남 분수광장을 거쳐 거북선이 있는 통영 강구안 문화마당을 방문한 뒤, 김영삼(YS)의 고향인 거제 시내를 잇따라 방문, 조선-해양 산업, 동남권 성장 비전을 제시했다.

15일엔 영호남 화합의 상징으로 불리는 하동의 화개장터에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하고, 경상도와 전라도 청년들과 마주 앉아 일자리와 주거, 출산, 육아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

이어 광양으로 이동해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창당한 전남 드래곤즈 축구단 구장을 방문, 철강과 물류, 해운 산업 경쟁력을 이끌겠다는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

다음 행선지는 임진왜란 최후 격전지였던 여수 이순신광장이다. 이곳에서 해양주권 수호 의지를 강조한 뒤 순천과 목포에서 유세를 마친다.

▶관련기사 3면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기록, 민주화의 길' 사진전

5·18 민주화운동 45주년,
역사와 진실을 마주하는 시간.

전시일정

1차: 2025. 5. 16 ~ 5. 21

2차: 2025. 5. 26 ~ 6. 10

장소

광주광역시청사 1층 시민홀

주최

전남일보